

구동에서



김종민
논설실장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전이 4차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에서 준비하는 지역 거점으로서 대도약을 이끌 '준비된 인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선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민형배(광주 광산구 국회의원) 후보가 확정됐고, 진보당은 이종욱, 정의당은 강은미 후보다. 국민의힘은 안태욱·이정현 후보(경선 예정) 중 한 명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은 각기 비전을 설명하며 자신이 중책을 수행할 책임자임을 내세운다.

민주당은 당초 경선 흥행에 대한 바람은 고사하고 네거티브만 심화돼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제를 안았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합쳐 더 기술어진 운동장이다. 야당은 두자릿수 유망한 득표율 달성에 몰두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6·3지방선거를 실시하지도 않았지만 결과를 떠나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범 자체에 대해 전국적인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 상에도 못박은 서울특별시의 지위와 위상을 과연 갖출 수 있을지 일부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유권자들도 선거 열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시로 거듭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지, 지방 소멸을 막는

특별시민도 특별시장 맞을 준비 서둘러야

획기적인 혁신에 도달할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선거 이후가 더 문제일듯 싶다. 해서 정말로 믿고 맡길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받은 리더 또한 신명을 다바쳐 제대로 일하겠다는 초심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특별시장이 갖춰야 할 다섯가지 자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끼거이 수용하는 리더십을 첫 번째로, 공론을 통해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낙후지역 우선 투자·복지교육의료의 균형 배치 등 상생과 인권 중심 행정, 장밋빛 정책으로 회망고문하지 않는 합리성의 원리에 따른 시민의 이익 실현, 미래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전략 등이 그것이다.

천 년에 한번 만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는 잘 준비해야 잡는 행운이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현안에 빠르게 결단하고 남다른 성과를 거둬야 한다. 불가능하지 않다. 얼마든 기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지방분권 광역 행정을 통해 국비와 인프라를 확보하고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합하면 어느 지역이라도 가능하다는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다. 문화·환경·복지·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일류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가 궁극의 목표다. 서울에 그리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전남광주특별시는 이에 버금갈 상징성을 갖는다. 인구 300만명, 지역 내총생산 150조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재편된다. 비교우위 자원인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을 육

성한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규범이다. AI 기반사회 선도자 역할을 꼭 해낼 것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양질의 고용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젊은 인재가 스스로 찾아와 도전하고 싶도록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도 우대 대상이다. 다양한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당담아예상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의 확대, 구조적 변화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이다. 산업과 재정, 인프라를 보다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27개 시·군·구가 함께 동반 성장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연대 의식을 확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뜻을 같이 하며 광역 통합의 담원, 정체성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이젠 '특별시'가 보명령사가 돼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가 그 시작이다. 총남대전특별시, 대구경북특별시, 부산울산경남특별시가 뒤따르며 지역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특별법 상에도 '국가'는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정부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시민주권정부'여야 한다.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자리다. 원만히 갈등을 수습하는 게 먼저다. 고루 포용하는 큰 정치를 펼쳐야 한다. 특별시민도 특별시장을 맞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社說

예매전쟁 숨통 트인 호남선 KTX 증편 환영은 하지만

광주송정역과 서울 수서역을 오가는 호남선 일부 고속열차에 2대의 기관차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련(重連)운행'이 시범 도입된다. 승차권 예매는 한 달 전인 지난 15일부터 모바일 앱(코레일톡, SRT앱)과 누리집, 역 창구 및 자동발매기에서 시작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해 민관정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 증편을 지속 건의한 결과지만 만족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처방은 한계가 있다. 일단은 이번이 수서역을 출발·도착하는 열차의 공급 좌석이 일주일에 2천400석(6회 각 40석)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토요일에만 기존 운행하던 410석 규모의 SRT에 410석의 KTX-산천을 추가해 820석으로 2배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중련 탑승 시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약 10% 할인된다.

지금껏 상시 매진에 따른 불평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연휴는 물론 추석과 설 명절 잔여석 예매를 위해 긴 줄이 생기는 등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광주송정역에서는 호남선 불공정 해소를 증편을 촉구하는 데

규모 시민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광주시는 중앙정부와 부처를 상대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주말과 평일 혼잡 시간대 만성적인 좌석 부족에 숨통이 트였다. 광주시는 앞으로 운행 횟수 확대 등을 국토부 등에 계속 요구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 협력해 추가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용객의 혼선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기관차를 2대 이상 잇는 방식이다. 해당 열차는 출발 시간이 같지만 앞뒤 열차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 온라인으로 예매할 때 KTX와 SRT 노선을 모두 조회해 빈 자리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임시방편일 뿐이다.

철도는 국가 기간 인프라에도 줄곧 차별받았다.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뒤처진 현실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 늦게라도 개선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이재명 정부의 5급3속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도 선결 과제다. 호남선의 공급한계로 생활 인구 유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증편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차체에 요금부담 문제까지 적극 논의해야 한다.

외부 리스크 취약한 광주 제조업도 대응 역량 키울때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광주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을 대변하듯 산업계 전반에 걸쳐 충격이 미치고 있으나 지역 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그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응답 기업의 대다수가 '영향이 있다'고 답해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들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해상운임·물류비 상승, 환율 부담 증가, 원자재·부품 수급 불안 등으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대·중견기업과 중기를 망라해 원자재 및 에너지 부문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으며, 특히 외부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모든 기업이 피해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바 3중고, 4중고에 직면해 있다. 광주상의는 수익성 악화와 생산활동 위축이 이어진다면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이 대거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광주지역 시 5개 자치구와 함께 비상경제대응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전방위적 민생 안정대책을 추진

하고 있다. 수출입기업 지원에도 착수했다. 자금난이 우려되는 1천여곳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 100억원을 투입하고, 수출진흥자금 30억원을 신속히 집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합의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며 전쟁이 곧 끝난다고 하지만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바, 지자체도 선제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현상 여건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처방을 조속히 내야 한다. 바짝 속도를 붙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단기적인 처방에 그쳐선 안 된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높게 형성된 국제유가도 그렇고, 원자재와 물류비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제조업체 스스로도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취약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다변화부터 모색해야 한다. 내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하겠다.

문화난장



최래오
꽃꽂이논설실장

왜 사는가? 오래 붙잡아 온 질문 끝에 필자의 대답은 분명하다. 배려하는 사랑, 나아가는 공부, 설레는 여행이다. 나는 사랑하며 공부하고 여행을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손목 감추어진 곳에 타투를 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에 각인을 해왔는데 몸에 도 각인을 했다.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퇴직 이후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며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해 왔다. 마당에 김치 향아리를 묻는 소박한 일부터 지난해까지 즐겼던 오토바이 라이딩으로 버킷리스트를 마무리했다. 한때는 우리나라 모든 시와 군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도에 표시해 가면서 열심히 이어갔지만, 결국 그 여정은 불가능하기에 중간에서 멈췄다. 여행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설레임이다.

그 설레임을 위해서 지난 해부터 홀수 달에는 서울, 짝수 달에는 지방 여행을 다니고 있다. 약속이 없을 때는 낯선 곳을 찾아서 짧은 도보 여행을 즐긴다. 시골에 살고 있어서

인생은 끝없는 여행

복잡하지만 활기있고 열정 가득한 서울 여행이 더 큰 즐거움을 준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스쳐가는 해외여행보다는 오래 머물고 멈추는 국내 여행이 더 깊이 다가온다. 여행을 다녀오니 머물면서 즐기는 도보 여행이 제일이다. 서울여행에서는 평균 1만5천원에서 2만 보를 걷는 여행은 발가락에 물집이 생길 정도이지만 열정 덕분에 견딜만 하다.

여행은 동적이다. 움직이는 여행이기에 건강과 경제적인 여유와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 중에 제일은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다. 떠나려는 설레임이 있어야 건강도 챙기며 여행 준비를 즐기며 떠나는 날을 기다린다. 여행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새롭게 보인다. 집에 오래 머물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익숙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모두가 주어진 환경에서 익숙해지니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가 보다.

그러나 여행은 그 익숙함을 흔든다. 3월에 떠난 4박5일 서울여행에서는 인왕산 성곽길을 걸으며 긴 역사 속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았다. 명동과 코엑스 별마당에서는 종일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양한 삶을 상상했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속에 있는 나를 즐겼다. 청담동의 명품거리를 걸으며 시골사람답게 멋진 건물 사진을 찍으며 낯선 화려함을 즐겼다. 일부러 들린 커피숍과 음식점에서는 가격과 공간의 큰 차이를 느끼며 오히려 여유로운 시골의 소박함이 그리워졌다. 깨끗하고 화려한 공간

속에서도 마음은 늘 돌아갈 곳을 찾는다. 그 순간 삶은 바라보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벚꽃이 꽃망울을 머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벚꽃이 만개했다. 짧게 피고, 가볍게 떠나는 벚꽃을 즐길 때다. 벚나무 아래서 벚꽃 사이에 보이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바람에 휘날리는 꽃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길가에 벚꽃이 질 때면 시작되는 앞산의 산벚꽃이 피고지는 봄날을 만끽한다. 지지자 불어라지자 불어호지자(知之者不如樂之者, 不如好之者) '아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고, 즐기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공자의 말처럼 다가오는 봄날을 진심으로 느끼고 좋아하자.

흔타 여행을 하다 보니 주위 시선을 의식하게 됐고, 선글라스를 쓰기 시작했다. 검은 렌즈 너머로 세상은 한층 여유롭게 다가온다. 이제는 짧은 외출에도 선글라스를 쓰면 곧바로 여행하는 마음으로 전환된다. 자의로 움이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르게 흐른다. 나는 어디에서든 여행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 그래야 지루하지 않는 삶이 이어진다. 살아가는 것은 인생이라는 길 위를 걷는 일이다. 오늘도 나는 사랑하고 배우며 떠날 준비를 한다. 설레임이 있는 한 삶은 계속 새로워진다. 어디서나 여행 마인드를 가지려 노력한다. 살아가는 자체가 인생이라는 여행이 아니겠는가.

독자투고



행락철은 차량 통행량 급증과 함께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 대형 사고의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닌 발생 전 차단에 주력하는 '선제적 교통안전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찾아가는 예방 교육'으로 안전의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관내 경로당과 사회적 약자 복지시설을 방문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행 원칙을 안내하고, 안

봄철 행락기, '교통안전'이 시민 생명 지킨다

전 읍읍을 배부하는 등 현장에서 소통하며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무관용 단속'으로 도로 위 무법 행위를 엄단하겠다. 주·야간을 불문하고 행락기 주변 및 사고 다발 지점에서 상시 음주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신호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셋째, '선제적 시설 정비'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 통행량이 늘어나는 주요

도로와 축제장 인근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전수 점검해 파손된 시설은 즉시 보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신호기 신설 및 안전 표지판 보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로 위를 묵묵히 지키겠다. 이번 봄, 여러분 모두가 안전이라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행복 한 추억만을 쌓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고한용·광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카시 광장

동상이몽

손턱손

성격도 천차만별
생김새도 제 각각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시작 노트

첨단의 중식당에서 송년회를 하는데
천장에 매달린 붉은 등의 색깔이 강렬했다.
같은 듯다른 모양,
그렇지만같은 색의 배열에서 한 가족이지만
각기 다른 가족의 생김새와 다른 성격을 가진
가족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